

사설

승가대학원에 거는 기대

조계종 사상 최초로 승가대학원이 은혜사에 개설돼 지난 7일 개원식을 가졌다. 불교의 존립과 미래 세계에서의 한국불교위상을 짊어질 인재양성을 위한 이번 교육 불사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크다.

둘이켜 보면, 중국을 비롯한 한국의 불교는 정통의 교학을 기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교외법전의 파격을 기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양대 진영으로 갈라졌다. 교(敎)와 선(禪)의 대립이 그것이다. 아시안 시파 선은 신라말에 선문구상을 통해 선이 도입되었고, 그 이후 이래 고려 불교의 역사는 교와 선의 대립과 융합이라는 테마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융합의 모범은 처음에는 교가 주축이 되어 선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대각국사의 천을 그 대표자로 꼽을 수 있다. 다음에는 선이 중심이 되어 교를 통합하고자 했다. 보조 지율이 그 사립이다. 이 과정에서 선이 결국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한국불교는 조계 선종을 주축으로 전승되었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전개되는 이른바 삼종선(三宗禪) 논쟁은 조사(祖師)를 여러(如來)보다 더 우위에 세움으로써 완전한 파격을 표방하는 선의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역설적으로 알려준 사건이었다.

지금 산문의 현실은 이같은 역사의성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 조실이 우대받고 강주가 그 아래에 고부 정도의 위상으로 잡혀있는 것은 교종에 대한 선종 우위라는 한국불교의 연장선에 있다. 지방 강원도 강사수는 점점 줄어들어 대본사에서조차 강사를 구하기 힘들며, 기껏 모신 강사들도 얼마 안가 떠나고 만다는 이 통탄할 현실을 불교계는 진작부터 우려하고 대처해야 했다. 늦게나마 조계종이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승가대학원을 개설했다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는 가장 큰 문제는 교학적 전통의 위축에 있다. 대승 공관도 공에 이르기 위해 그토록 지루하고 치밀한 변증을 거친다. 언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언어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한국 불교의 선의 전통은 언어 너머를 지향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지평을 간파해버렸다. 만세의 스승 원효 큰 스님도 일찍이 이언(離言)의 진리(眞如)와 함께 의언(依言)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한국불교의 가장 큰 과제는 교학적 전통의 재건이라고 확신한다. 교학은 언어를 통한 공감과 이해의 전파이며, 이를 통해 불교공동체의 확산과 단합, 그리고 집단적 귀의가 가능하다.

이제까지 한국불교는 선의 개별적 자득을 표방해오면서 집단적 신행의 근거는 정토에 기대는 양면성을 통해 발전되고 유지되어 왔다. 대웅전과 심검당(尋劍堂)의 분리된 이원적 공간이 한국불교를 상징적으로 일깨워주는 징표였던 것이다. 그 이원적 분리를 통합시킬 수 있는 관건이 바로 교학이라고 생각한다.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의 지적 심리적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고 그를 통해 중흥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은 교학의 육성이라고, 그런 점에서 강사와 강주의 교육은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강사와 강주들은 전통 교학에 정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대적 화법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근대의 제 학문과의 변별 융성의 모색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은 참으로 수승한 근기를 필요로 한다. 당연히 그에 걸맞은 위상과 예우,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보해야 한다. 이 일에 전 불교인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격려를 기대한다.

날 수 없다.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학적 전통의 위축에 있다. 대승 공관도 공에 이르기 위해 그토록 지루하고 치밀한 변증을 거친다. 언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언어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한국 불교의 선의 전통은 언어 너머를 지향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지평을 간파해버렸다. 만세의 스승 원효 큰 스님도 일찍이 이언(離言)의 진리(眞如)와 함께 의언(依言)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한국불교의 가장 큰 과제는 교학적 전통의 재건이라고 확신한다. 교학은 언어를 통한 공감과 이해의 전파이며, 이를 통해 불교공동체의 확산과 단합, 그리고 집단적 귀의가 가능하다.

이제까지 한국불교는 선의 개별적 자득을 표방해오면서 집단적 신행의 근거는 정토에 기대는 양면성을 통해 발전되고 유지되어 왔다. 대웅전과 심검당(尋劍堂)의 분리된 이원적 공간이 한국불교를 상징적으로 일깨워주는 징표였던 것이다. 그 이원적 분리를 통합시킬 수 있는 관건이 바로 교학이라고 생각한다.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의 지적 심리적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고 그를 통해 중흥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은 교학의 육성이라고, 그런 점에서 강사와 강주의 교육은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강사와 강주들은 전통 교학에 정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대적 화법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근대의 제 학문과의 변별 융성의 모색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은 참으로 수승한 근기를 필요로 한다. 당연히 그에 걸맞은 위상과 예우,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보해야 한다. 이 일에 전 불교인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격려를 기대한다.

열린마당

윤리선언 — 각 종교대표에 듣는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정신 회복

월주 <불교종단협의회장>

윤리는 가정과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위한 경제성장에 매달려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 우리민족을 유지시켜온 공동체정신은 말살되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21세기 통일시대를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붕괴되는 윤리관계를 올바르게 세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우리선조들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윤리로 생활속에서 상부상조의 전통을 구현했다. 이런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정신, 곧 전래의 아름다운 공동체정신의 회복이야말로 이 시대 윤리를 정립하는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의 슬픔을 안고 기약없는 탄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과 미래사회를 위한 윤리관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맨먼저 도덕적 신의를 망가뜨려버린 정치지도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정치지도자와 공직자는 그 일거일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윤리의 타락은 가정윤리의 파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정은 국가사회의 핵인만큼 가정을 바로세우면 나라가 바로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를위해 내일에 대비하는 윤리관 재시에 종교인들의 숭선수범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이 전쟁준비에 더 큰 힘을 쏟고 있으며, 국민민안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 정치는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종교인들이 하나되어 민족 상상의 고통을 극복하고 협력과 화해로 하나되어 분열과 갈등이 새로운 참조로 승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의와 평화의 질서가 우리민족의 윤리규범이 되어 줄거은 가정과 살만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방예의지국’ 전통 되살리자

김재중 <천도교교령>

오늘날 우리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져 가고 있다. 나만 잘살겠다는 이기심과 배금사상이 합몰되어 인간성을 파괴하는 퇴폐와 향락주의로 가치관이 전도되어 폭력과 살인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까지 생기고 있는 현실은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해온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송두리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와 도의 함양을 위한 구체적 실천책으로 30가지의 실천지침을 정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실천토록 할 것이다.



국민 참되고 선한마음 갖도록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자리하여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고 사람의 정신이 가난해져서 가난해진 이 사회를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민족의 미래가 어둡다는 공감각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우리 종교계는 윤리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모든 국민에게 우매한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납고 악한 마음을 훈화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사되고 거저된 마음을 바르고 참된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열게하여야 한다. 국민 개개인마다 최염의 근원이 청정하고 이 나라의 복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그리고 통일된 조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도덕선진국이 되게 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평화정신으로 민족상잔 극복

김동원 <기독교교회협 총무>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 속에서도 자랑스런 문화를 꽃피우며 외국의 문물을 넉넉한 마음으로 승화시키는 여유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변 강대국의 파고가 높은 시점에서 반쪽으로 나뉘어 있다.



21세기 새윤리 확립 종교인 앞장

김몽은 <천주교 KCRP회장>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되고 인간의 순수한 마음은 비인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에서 민족의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윤리질서를 확립하여, 이를 실천해나가고 종교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간다면 윤리질서는 바로서리라 본다. 이 새로운 윤리질서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종교인들은 정성을 모아 앞장서 실천하고 기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지도자·공직자 청렴 촉구

최근덕 <성군관장>

평화로운 삶을 누려온 우리겨레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합하고 혹은 나뉘는 역사의 전개법칙에 따라왔을 뿐 한시도 한 핏줄임을 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국토는 허리가 잘리고 민족은



실천지침 만들어 교당에 배포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회장>

근래 우리사회는 더이상 예의지국의 민족이 아니며 유구한 역사를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전반에 민연한 윤리의식의 타락은 극악무도함에 이르렀고 반만년을 지켜온 단일민족은 반백년이 되도록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리때 윤리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어제를 뒤우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마음 한 뜻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우리겨레의 윤리를 다시 밝히고 민족을 통일시켜 선대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찬란한 문화를, 다시 꽃피우기 위해 한국민족종교협회에서는 이달 안으로 윤리선언요강 지침을 만들어 모든 교당에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대만평



한번쯤 읽어봐야 할 사람

목어

지난 9월18일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보브 돌이 유세연단에서 실족하여 굴러 떨어졌다. 이 불발 위상된 포스트는 이 장면을 1면 머리사진(노트함권 크기)으로 처리했다. 경쟁지 뉴욕 타임스는 이 사진을 속지로 다뤘다.

신문이 나가자 위상된 포스트 편집국에 독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2분 간격으로 2백5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항의 요지는 “정문지가 과연 이럴 수 있는냐”는 규탄이었다. 특히 이 항의

전화 가운데 한 통화만 빼고는 모두 린린한 지지자였다고 한다. 어느 주미특파원이 ‘살아있는 미국독자들의 앙식’을 전한 기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하는 “그 기사를 그렇게 축소보도해도 됩니까.” 미국독자들의 항의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현대불교’는 이러한 소리까지도 ‘기사선정에 더 신중하리’는 독자의 애정으로 받

‘현대불교’의 주인은...
것이 발행목적인 교계신문도 기 사화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날때 가 있다. 밖으로 널리 알려 불교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그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이다. 10월15일자로 창간2주년을 맞은 ‘현대불교’는 각계각층에서 보내는 성원에 힘입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세계화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그 전법의 길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오늘’이라는 옷을 입히고 사회가 바로 가르침의 실천도량이 되게하자”고 다짐한 창간사를 오늘 두들음을 맞아 다시 확인한다. 그 마음은 초발심과도 같다.

우리는 전법이 세계화 될 때까지 가일층 정진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불사는 ‘현대불교’ 인력만으로는 어렵다. 교계의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하여 포교사·학자·대학생·주부 등 사부대중이 동참할때 가능하다. ‘현대불교’ 지면은 사부대중의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여러분의 더 큰 질책과 관심 그리고 성원을 기대합니다.”

새싹들 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진정한 친구
아기가 언저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상을 의지하고, 다른 사상이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상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이다.
(스타니파타)

청룡사
주지 법운
TEL. (02) 612-0609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도화를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기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갈 것입니다.

불교방송
BBS Broadcasting System
대표전화 : 705-5114 FAX : 705-5229